

황면도옹며천벽홍흔탈이등에가작란고셔에가충돌옹며벽에서섬흔옹며남에가
 현형옹야동셔남북에되는거시홍흔탈이오홀왕홀리옹야무수흔개쌍검이라십만호
 병이안목이미란고고정신이어즈러워물살듯짓거리며스면으로물니거늘선위바야
 흐로대경왕이엇지심상환슈리오괴이흔저편이라과인이벽만대군을거느려중국
 에나와다가이제일기잔약흔녀장을덕지못고패옹야도라잔즉하면목으로북방
 사를을타옹리오과인이흔번싸화스싱을결단옹리라옹고즉시좌우를호령옹야알과
 인의렬창과마필을가져오라옹야창을들고물게오르니원리선위일기렬창을쓰니그
 무개일천오벽근이라창법이홍녕옹야흔번더진즉능히수벽보박괴섯는사름을썰너
 흔창에수십명을짓치나평성용력을밋고적은위티흔을당흔즉요동치아니옹더니츠
 일홍랑의검술을보고분연이진상에나크게웨여왕더괴가느더장슈는무죄흔군스를
 어즐어이죽이지말고흔번즈옹을결하게라흔대홍랑이즉시쌍검을거두고물을잡
 으니선위홍녕흔눈을부릅뜨고우퇴긋치포함옹며렬창을들어부지불각에홍랑을향
 공야흔번더지니산악이문허치고벽력이느리는듯바로홍랑의머리우헤느려져사에
 삼스척이박히이며홍랑은간디업고다만정연흔칼소리공중에들니거늘선위더욱대
 노옹야물을달녀렬창을싸혀들고뒤를도라보니홍랑이웃고조차오며랑랑이소리옹
 여왕션우는부질업시닷지말고목을느리혀내갈을밧으라던라디망에텅텅히싸혔스
 니엇지버셔나리오옹거늘선위분괴충현옹야렬창을다시더지며돌쳐서매홍랑이임

의간디업고정연흔칼소리또공중에들니거늘선위크게흔소리를지르며다시렬창을
 싸혀들고뒤를도라봄에홍랑이뒤에잇고압홀브라봄에홍랑이압히잇셔좌편을보아
 도홍랑이오우편을보아도홍랑이라선위렬창을들고더질곳을물나등으로견주매동
 에잇는홍랑이임의간디업고셔홀견주더니셔에섯든홍랑이또흔보지못홀지라다만
 벽설이분분고운위자욱흔중정연흔칼소리스면에편만옹니이논이에홍랑의검술
 이니전일만진중소유경을곤케옹든법이라선위대경동곡옹고렬창을마전에더지며
 왕과인의창법이일즉실슈흔이업더니이논반드시요물이과인을괴롱흔이로다언미
 필에공중에셔랑랑이웨여왕션우는이제도항복지아닐쇼냐옹거늘선위홍랑의소리
 줄알고고쳐렬창을집으며대노왕과인이오술에속음이오창법의부족흔이아니라엇
 지항복옹리오홍랑이대쇼왕미련흔오랑개오허려창법을즈랑옹니내또흔칼쓰는법
 으르디덕하리라옹고즉시쌍검을거두고놈히웨여왕내너로더부러삼합을싸화내칼
 이네머리에세번지나간즉이논네나를이괴지못흔이오네창이흔번내몸에니른즉내
 너를당치못흔이라약속옹기를밧고창검이어우러져대전삼합에션우의홍약흔은밍
 회렬망을박차는듯홍랑의정묘흔은넘노는봉황이죽실을짓조는듯흔번물너서며흔
 번나아가삼합에밋춤애션위흔연물을싸혀다라나니원리홍랑의칼이세번선우머
 리에니름이라홍랑이물을달녀썩고져옹더니홀연합성이대작옹고양원쉬대군을모
 라오며크게웨여왕장군은궁흔도적을썩지말라옹거늘홍랑이바야흐로칼을거두

고물을달녀원슈의대군을마져일장을식살하니호병의죽은자를헤아릴길이업더라
 십여리를조차회군하니런지션에는리샤홍흔탈의손을잡으시고위로왕경의검술을
 일즉드렸스나엇지단기로십만호병을이긋치물니칠줄알았스리오이는전혀충성과
 의과과인하야스성을불고함이니금일중원이피말죄임하는욕을면함은경의공이로
 다흔탈왕신첩이무용하와션우의머리를휘하에받치지못하오니군령을도망치못할
 가하느이다상이쇼왕금일싸힘은션위비록머리를보전하앗스나정신과녁은니른지
 오렐지니그공이엇지머리를취함만못하리오하시더라홍랑이물너와양원슈를보고
 왕상공이엇지대군을지레동하시니잇가원슈쇼왕첩약흔과질이오래접전함을념려
 함이니내멀니보라봄애쌍검이루초션우두상에밧쳐거늘랑이취치아니함은무슴곡
 절이노홍랑이탄왈이날은런명이다하지아남이라대범검술이사름을경이히죽이지
 아니하느니반드시그괴운을다하고지조를궁진케흔후회회보아버힐지라만일상
 공의대군이흔시각을춤앗던들션우의경혼을구쇼운외에차질번하니이다하더라차
 설션위십여리를쫓기여가다가바야호로함성이뺏쳐거늘물을느러길가에쉬더니패
 혼호병과척발날로군이초초모여군스를헤여봄애겨오륙칠천기놈엇더라션위탄왈
 과인이평성담대함을즈부하얏더니홍흔탈의검술은간담이사늘하야다시덕활방
 략이업스니바로산동성으로가곳쳐성지를직희고경륜하리라하고칠천여기를슈습
 하야부으로행하니라초시양원슈션우의패하야다라남을보고런즈씩고왕적병이귀

디에드러와예기를흔번씩기인즉스스로것잡지못하리니초시를죽길이모라엄살함
 이을을가하느이다런지조차샤이에동초마달로션봉을삼고원슈와홍표요로중군을
 삼고런지소유경을다리샤후진이되야대군을거느려진말할시양원슈또흔산동제군
 에겨쳐를보내여군스를부르니라초시션위군스를지축하야산동성을향하고갈시지
 나는곳마다민가를로략하야계견우마를달취하며관부들엄습하야군량병기를도져
 하니민심이더욱소동하야호병소과에풀흔포괴성함이업더라아시오산동성에니르
 러성상을보라봄애중국기치를쫓고일위귀인이기아래나안져크게부져왕과인은
 진왕이라태후명을받조와산동성을직현지오래니쥐긋흔오랑개어되로갈다하거늘
 셤위대경하야정이황망하더니홍연또등뒤에합성이런디를흔들며양원슈의군이런
 즈를되셔오는지라션위로군척발날을보아왈하늘이과인을돕지아니하야산동성을
 마져일엇스니압히는진왕이오뒤에는연왕이라장춧어되로같이오척발날왈스제임
 의위급하니밧비부으로다라나양원슈의대군을피함이을흘가하느이다션위그말을
 조차망망이산동성을보리고부을향하야수리를가더니홍연일셔포향에일지군매길
 을막고일위장군이대척왈내여괴서기드린지오래니션우는닷지말라하거늘초시임
 의황흔이된지라션위흔눈을들어그장슈를보더니흔마티소리를질너왈숨흐다과
 인이엇지이곳에서죽을줄알았스리오하고물게찌러지니엇더흔곡절이며그장슈는
 누구노하회를보라

대삼십팔회

진왕이 만히산동성을 취하고
런지 천허 부흥 노를 치다

秦王暗取山東城
天子親征北匈奴

각설치시선위명장을 보고 놀나락 마하니 책발날이 급히 붓들어 왕대왕의 영웅함심으
로 엿지이다 지경동항시느니 잇가선위탄왈과인이 엿지이 곳에 와다시 더장슈를 맛날
줄알앗스리오이느홍훈탈이라하거늘 책발날이 고왈대왕은다시보쇼셔호탈이아니
로소이다하니원력이느이에일지런이라대후의명으로진왕을조차산동성을회복하
고선위의다라나느길을막음이라선위어좁고창황중련랑의모양이십분홍랑과방
불하고또홍쌍창을쌍검으로놀냄이라다시보고분하며참괴하야덜창을들어수합을
싸홀시엇지련랑을더떡하리오련랑이쌍창을들어흔번찌름애선위드리를맛고물을
싸혀다라나니책발날이또흔싸홀뜻이업서대군을거느러길을에위다라나거늘일지
런이군사를모라식살하야다시호병빅여기를버히니라치시런지산동성에드르시니
진왕이문의에마져대군을안돈흔후런지랑면안후를무르시고왈경이엇지이곳을직
히요진왕왈호병이모다남으로가고산동이북은근심이업느고로신이래후씨알외고
일지런을다리고몬져산동성을취회복후장차산동군사를도발하야남으로가폐하
를호위하랴함이로소이다상이탄왈짐이불명하야경등을이긋치로고하니참괴하도

다하시고인하야연왕을보샤진왕을무르치시며왈이느짐의미데진왕이라경등의문
무지지와위국지성이동공일데오또년과상덕하니한현지례를배풀라하진대연왕이
눈을들어진왕을보니옥모홍안에춘풍이무득하야풍류번화흔과상이잇스며슈미봉
안에정치어리여총명준일흔인물이라진왕이몬져흠신시례왈합하의경륜장을등
과지초에알앗스나진국이요원하고성의천박하야등요십년에게분이업스니참괴하
도소이다연왕이공경담례왈창곡은남방포의라련은이망극하와외람흔벼슬이대신
지렬에잇쳤스나지국이소무하고지식이천단하야금일국개이에밋치니대왕을이곳
에비음이엇지겸연치아니리오하고서로년치를무르니또동갑이라진왕은연왕의풍
취탁일음을공경하고연왕은진왕의풍류동랑함을스랑하야서로일면여구하더라련
지연왕드러왈일지런은짐의은인이라이제천히보고치샤코져하노니밤비부르라하
신대련랑이즉시답전에부복하니련지갯가이인견하시고하교왈네조등의벼슬이업
고또철혈흔녀지라의과를내여량던을보호하니금일짐으로하야곰련디잔불효를
면케함은네공이라짐이장차무엇으로갑호리오일지런이슈습황공하야감히답지못
하더니진왕이미쇼주왈신이련표과의춘광을보오니비록창을들고물을달녀장부도
당치못홀과상을가졌스나만흔중에창전에미해셔러지고언덕우에버들빛이새로
와엇지딕홀흔봄근심이업스리잇고폐해월로적승을쥬장하야곰고문갑데의부
귀를누리게하신즉이거시그공을갑호심이될가하느이다상이대쇼하시며봉안을홀

녀연왕을자로보시더라상이다시홍흔탈을불녀진왕을피시며조랑사알이느짐의
 새로엇은창쉬라단그로십만호병을물녀쳐종사의위티힘을붓든채니경은또흔한천
 지례를베풀라진왕이눈을들어흔탈을자로보며왕신이일즉듯스음애연왕이남정하
 고도라을때에일기총희를엇으니무예절륜하더니아니그니잇가상이미쇼왕경이
 엇지대장부름이녀조로보앗느뇨연왕의총희아니라짐의총신이니엇지분디군중에
 이긋흔인물이잇스리오진왕이량안을홀녀다시저삼보고디왕반악의부분힘과장량
 의부인又힘을고인에드렸습더니이느반드시하늘이조화를조랑사그지를내사패
 하씩드림이로소이다상이우으시더라양원쉬주왕호병이임의패귀하얏스나오허려
 월경치못하엿고래후량면이박게오래계심이민망하오니폐해이제진왕을다리사량
 면을피시고환공하진즉신이맛당히대군을거느려평명후후도라을가하느이다진왕
 이주왕신의나라이호디를니웃하야근일동정을볼애몽고도번녀진이슈미상합하야
 왕화를모르고자로중원을규시하니이느국가의근심이라폐해환공하사황성을정돈
 하신후런병을다시도발하사연경의대군을합하야북방제국을런지천정하심이도홀
 가하느이다상이허락하신후진왕을다리사진남성으로가시니양원쉬소원슈홍표요
 일지런동초마달과대군을거느려선우를조차북으로향하나라차설츠시래휘진남성
 에게시사진왕과일지련을보내야산동성을취하게하시고던조의안후를물녀날마다
 고디하시더니일일은고각이현런하고정외폐공하며런지진왕과성외에니르시니윤

蒙古, 吐
蕃, 女眞

燕京

각뢰양태야로더브리성중군스를거느려범가를지영홀시던지면면이위로하시고득
 별이양태야의손을잡으샤왕경은공명을스양하고부귀를하직하야인간진루를면하
 고청한흔선비라불히이흔암흔인군을맞나금셔를더지고시색을무릅쓰며미학을리
 별하고풍진에출각하나엇지참피치아나리오하물며가실이피화하야창황분주하고
 연왕은독현하야북으로행군하니경의부조의위국진총힘은맛당히청스죽빅에일힘
 이빛나려니와짐의불명힘은실로경을더홀낫이업도다태애황공주왕신이죽국이천
 단하고총성이부족하와북호를흔갈로버허망극지은을도보치못하고연연이성중에
 처하야폐하로천리위디에홀노욕을감슈하시게하오니신이그죽을바를아지못하느
 이다런지다시위로하시고성중에드르사태후씨외옵고옥뒤룡포를저시시며북디청
 죄왕쇼지불효불초하와모휘죄경에스히지양을안향치못하시고이고초를받으시니
 장차하면목으로슬하에이유흔빚을지어평일티교하신성덕을위로하리잇고래휘황
 망이상에는리사옥슈를잡으시고실성오열왕로신이오래살아이긋흔피변을당하야
 창망남북에련안을다시외읍지못할가하엿더니하늘이도으시고종새다북하야금일
 모지그리든얼골을더하오니비록오늘합연하나여흔이업슬가하느이다상이인하야
 모후를피셔망운지회와의려지정을세세이베푸사심상흔가인모조와다름이업더라
 이일던지래후량면과비빈제신을다리사환공하실시양태야하직왕신이병화지여에
 가신을모르오니도라가기를브라느이다상이쇼창허락하신대다시윤각로향장으로

白登

太原 雁門

가나라차설던지황성에니르시니궁궐이이의여구하나려염이공허하야인적이회쇼
 하고계견성을듯지못홀지라방문을써빅성을부르시고성문을동기하야오는자를위
 로하시니분찬하든빅성이구름모이듯하야각각넷집을차쳐저를안돈홀시로쇼남
 네성문에메여십여일을근치지아니하더라진왕이이에던저씩주알호명의작란홀이
 즈고로만스오나금번긋치창철홀은왕립소위오전고미문이라그육되고붓그림이종
 묘사적에밋쳤스오니폐해맛당히천정하사부호로하야공왕화를알게하실지라이제
 성중이안돈하고민심의구하니맛당히대군을도발하야지완치못홀가하느이다상
 왕집이엇지빅등지치를니즈리오마는죄잔홀빅성이겨오정돈하야다시종군홀이츄
 아못홀일인고로결단치못하얏더니이제경으로써정로죄데독을삼노니군중대쇼스
 를가음아라수이형군케하라짐이장춧천정하리라하신대진왕이즉시오영병을도발
 하고연경군스를부르니이에십만여기라던지탁일하사종묘에고유하시고사직에제
 하신후옹복을긋초사진왕과삼군을거느려형군하실시정고는폐공하고고각이현던
 하야엄숙한군령과정정훈위의던디진동하고일월이광치를돕더라던지대군을거느
 리사소과쳐에빅성을위로하시며민간질고를범하야龜히시니빅성이구경하며서로
 탄알국개불형하야호병이범궐홀애우리모다병화에죽을가하얏더니이제다시던저
 의위의를구경하니엇지즐겁지아니리오하며단스호장으로군스를맛더라태원사에
 니르사다시산서군스를부르시니합삼만기라던스를보내사연왕에게조셔하야안문

馬邑 朔方

上郡

杞梁

싸에서기드리라하시고마음사방을지내실시곳곳이전장이오빅골이여산홀중우느
 여호와짓는가마귀들을던헛거늘디방관을불너곡절을무르시니디방관왈선위니곳
 에니르러구병을불너양원슈와삼일삼야를싸화십만호병이원슈손에다죽고다만수
 빅기늘아승야도망하니이다진왕이추언을듯고원슈의진터를도라다니며보고단왈
 연왕은진기경던위디홀재로다하더라안문싸에니르시니양원슈임의대군을중지하
 야던저를맞거늘던지두군스를합하야천히거느리시고연왕으로우원슈를삼으시고
 진왕으로좌원슈를삼으시고홍표요로우스마를삼으시고소상셔로좌스마를삼으시
 고동초마달로좌우장군을삼으신후사방상군군스를다시도발하니모도오십만기라
 거기처중이이빅리에느러섯고기치창검이삼광을그리오니호탕홀기제와엄숙홀호
 령이고금에업다하더라돈황성을지내실시홀연드름애풍편에곡성이은은하야풍슈
 효저의반빅지둥도아니오기량지쳐의봉성지곡도아니라강개분격하고울불원억하
 야그소리십분홍대하거늘던저수리를머시키고디방관을불너무르신대돈황대쉬거
 전에부복주왈이압흔이에현육이라육중에일기죄쉬잇서이긋쳐우느이다하거늘던
 지축연하샤육압히친립하샤시위를멈추시고박비육문을쳐치고그우느죄인을잡아
 내야보니과연일기죄쉬목에죄스슬을걸고다리에잠을죄를잡는대서리털이귀밧
 흘덥고셔못은얼골에루흔이림리하야람루흔의상과원둥홀기식이일분인형이업고
 십분귀신의모양이라오허려홀손의도채를들고거전에업디여방성대곡하니루쉬여

우흐는지라던지일변놀나시며일변추연하샤그성명을무르시니죄인왕전임상장군
 되던풍이로소이다던지더욱대경하샤죄우를보시며알조고로찬비호죄인이다더
 혼다대취황공주왕전임참정로군이특별이황명으로신칙하야죄인을이긋치가두라
 하시니이다상이진노왕조정의법이업슨지오래나엇지이긋호리오하시고본읍태슈
 를버히고저하신대연왕이간왕래슈논미관이라조령을조출스름이니북원폐하는형
 상을삼가쇼셔상이즉시던위를거두시고되던풍의민거슬풀어의관을스하신후탄왕
 로장으로이고초를당함은짐의뜻이라짐이이제장군을다시볼낫이업스나장군의죄
 명이중하지안거늘엇지더디경에나를줄알앗스리오던풍이눈물을거두고왕신이철
 십지년에이고초를적고엇지다시던일을구경할줄알앗스리오다만조분호음죽
 어사나온귀신이되야로군의머리를버허우리성던조의일월지명을씨오치시게할가
 혼고로도채를잠시노치아님이러니이제죽어다갑지못하을망극하신련은을다시
 살아납스오니신이비록금일죽스오나여흔이업슬가하느이다상이위로왕로군은임
 의짐을비반하야홍노에게항복하코짐이이제되군을거느려선우를천정코져하노니
 장군을흔번쓰라하나장군의모양이더호느니놈은용명이업슬가하노라던풍이함루
 왕신이호병의법결함을듯고분함을이기지못하와죄를무릅쓰고필마단창으로황성
 을향하야스심을긋치하코져하나렬망에가친범이엇지버셔나리잇가다만쥬야호곡
 하코식음을전폐하중로군이본현에신칙하야미일일과죽으로써잔명을지보케하니

樊噲 廉將軍

賀蘭山、
蒙古堆、
西、
關、
西、
城、
金、
城、
蘆

신이금일이모양됨은실로주림을인연함이라만일다시비불니먹은죽되던풍의만부
 부당지용은하늘이주신바라엇지변하리잇고언필에벽력부들들어흔박휘를두루며
 죄우를보아왕로장의용명이이만하면엇지홍노와로적의머리를취치못하리오하거
 늘던지우으시고칭찬하샤흔말슬과흔드리제육을주시니던풍이도채로씩어삼시간
 에다먹으니상이쇼왕로장이능히다시마실쇼나던풍왕신이비록하엇스나번쾌의두
 치쥬와렴장군의십근육을스양치아니리이다상이미쇼하시고죄우를명하샤쥬육을
 다시더주라하신후전마일필과갑쥬궁시를스송하시고전부선봉을삼으시니라연왕
 이던조씨주왕이제듯스오니선위하란산에웅거하니하란산은험준한산이라동북으
 로몽고되를니웃하코셔남으로도번과셔역을동하야북호의요충지라던병을오래
 이곳에두류치못할지니밤비룡셔노관과돈황금성군스를다시도발하야하란산에
 위싸고선우를잡음이을출가하느이다진왕이또주왕던지임의대군을거느리샤이곳
 에너르러만일선우를버치지아니하신즉엇지스이팔만을호령하시리오복망폐하는
 연왕의말슴을조츠샤썰니치게하쇼셔상이조츠샤군스를부르시니모도백만여과라
 하란산하에너르러연왕이홍흔탈을다리고진을철시대군을삼백륙십사에난화십이
 방위에미복하코흔방위군스를또삼십사에난화각각진을치되죄우익을일위버린쥬
 도익진이되고합흔죽어린진이되게흔후약속왕진상에복을치거든일시에죄우익을
 버려십이방위를련하야슈미상합하코진상에징을치거든일시에죄우익을거두어각

각대방위를지희라하니일홍은글은혼던진이라다시늬은군사로써하란산아래중앙
방에무곡전을쳐던조를호위하니멀니셔비라봄에진계심분서어하니그든둔홍이덜
홍곳더라차설선위하란산에올나던조진을비라보고쇼왕망홍들가온디군사를
난화진을더곳치널니치고엇지패하지아니리오홍며만히몽고병을청하야시야삼
경에바로산에느려명진을검박하니심분방비홍이업더니홍연진상에북소리진동하
며십이방위삼백륙십계군시일사에우익을버려료의진을일위슈미상합하니호병이
임의진가온디드러중중첩첩히에위싸혔스니선위스스로쳐듯지못하야다만호병을
지휘하야중앙방던조계진곳을충들코져하니엇지리오필경엇지홍고하회를보라

매삼십구회

하란산에원슈개가를알외고

전우디에호왕이드러와조희하다

賀蘭山元帥奏凱
單于臺胡王入覲

각설스시선위도병과몽고병을합하야종야도라던조계진전을쳐치려하니이
진은이에던상무곡성의데원을호위하는진이라죽용의도술노도오허려파치못하얏
거든엇지전우와호병의침범할바리오창검이서리긋고수리와방패로성을일웠스니
어느곳을착슈할방략이업더라아리오날이붉음에선위바야흐로에위싸힘을알고대
노하야이에몽고의타호군일천기를뿔아진을뿔코져하니대개타호군은몽고중막강

자병이라능히적슈공권으로범을잡는고로일홍을타호군이러하더라홍홍달아원슈
씩고왈몽고는던하강병이라몬져에과를씩근후선우를잡을지나진을잠간변하야팔
문전을치쇼셔원슈그말을을히녀여즉시무곡전을변하야괴정팔문전을치고스문을
얼때몽고병이엇지전법을알나오그허소흔곳을보고타호군일천과일시에돌입홍대
홍연진문이닷치며갈곳이업고전후좌우에검국이서리긋흔중진중에북소리진동하
며동문이열니거늘그리로충돌홍즉그문이닷치고다시셔문이열니거늘그리로충
돌홍즉그문이닷치고다시북문이열너반향을출입하니나갈곳이업고정신이미란
하야운무중에빠짐곳흔지라서로늘나왈우리알즉첩첩산중에밍호를조차갈같이몽
연하나정신을일은때업더니이반드시오술이로다하야고아모리홍바를모르더니홍
연진상에서크게웨여왈몽고병은드르라너의임의던라디망에드릿스니비록두날기
잇스나도망치못할지라다만명던지잔명을추연이보샤일도싱로를주시나셀나도라
가선우의머리를베혀박치라웨하기를못고남편에홍문이열너거늘타호군일천과일
시에그문으로돌출하니임의전박개나타선우를보고알명원슈의장략은던산이
하강홍이라힘으로다도지못할지나대왕은셀나항복하쇼셔안미필에명진중에다사
일성포항에십이방군시일사에에위싼거슬츠초좌야스면으로쳐드러오거늘선위로
균척발날을보아와과인이소루하야이제다시곤홍을당하니맛당히평상함을다하야
홍번죽기로결하리라하야고창을들고물게오르며호병을약속하야다만과인을싸르라

하고드러오는명병을더덕고저하더니홀연등뒤에일기로장이벽력부를두루며우뢰
 꺾치소리하야왈대명선봉장군되던공이여기잇스니선우는어디로갈다공거늘선위
 대노하야물을돌쳐서로마져대전수합에홀연일기호장이물을달녀넙흐로지나가며
 웨여왈대왕은필부와용왕을다도지마르쇼셔이뒤에홍흔탈이오나이다공거늘던공
 이도라봄애이에좌현왕로군이라의외슈인을맛남애일충분기새로이더공야크게호
 소리를지르며선우를비리고로군을조차대매왈반적으로군아내도체를갈아기드린지
 오래니맛당히네심흥을짜의여쇼인의오장류부를흔번구경하리라흔대로군이오히
 려도라보며썩지저왈필휘엇지무레하노하거늘던공이눈을부릅뜨고도체를들어흔
 번씩음애로군의머리부터전신을스뭇쳐짜의여일기로군이두조각로군이되야마하
 에느려지니숨흐다만복잡념이경흔을쓰라경각에도채뺏히호히지니유유흔구원야
 덕에또흔하소홀곳이업슬지라엇지하늘이무심하시리오던공이다시물을돌녀선우
 와접전코저하더니과연명진의북소리요란하고홍스매대군을모라식살공거늘선위
 황망이물을싸혀동북으로충돌코저하나중중렷렷이에위썩바를엇지헤치리오정히
 착급흔중동초마달소스매또대군을세길로난화식살하니선위척발발을보며단왈일
 이급흔지라과인이장군을도라볼길이업스니맛당히단신으로도망하야결단코이원
 슈를갑홀지니장군은과인을원망치말지어다척발날이간왈쇼장은드르니역던자는
 망하고슈던자는창이라하니우리일즉중국을침노함이일흔업는군사라이제이꺾치

랑패하되항복지아니흔죽이는역던함이니대왕은다시유익지아니흔망계를두지말
 고일즉투항하야벽성의명을구하쇼셔선위대노하야덜창을들어척발날을치고저흔
 대척발날이피하야다라나거늘선위즉시흔소리를지르고덜창을잡아몸을소사두번
 근두쳐에위썩거슬헤치고진밧기나바로하란산으로올나가니이때척발날이양던탄
 식하고물게느려명진에투항흔대던지천히장을거두시고척발날을잡아드려썩지저
 왈네던시를모르고선우를도아대국을침노하다가이제또무슴간계를포장하야이심
 을두어거죽항복하느다척발날이머리를조아올며고왈신이비록우준흔오랑캐나또
 흔중국혈손이니한나라채대스의살채문희의후예라일루혈속이면면부절하야비록
 호디에품부하얏스오나엇지중국을저버리리잇고일즉선우를간하다가선위말을쓰
 지아니하고마침리과병하야미던대죄를범하얏스오니신이이제중국을침노하야의
 업논사름이되고선우를비반하야충성업는신해되었스니던기간에엇지살기를브라
 리잇고던지그말을드르시고추연왈네만일진기성심으로투항흔진대죄를샤하리라
 척발날이눈물을흘니며하늘을마르쳐밍제하고손가락을쳐물어항셔를써밧치니상
 이양원슈를보시며쇼왈사름이진실로중락을도망치못하느도다척발날의말과괴식
 이십분유슈하야호풍이적으니과특지아니리오하시며민거슬글너휘하에두시니라
 양원슈던조씩고왈선위이제혈혈단신으로하란산으로드러가니이느그물에든고기
 오롱에든새꺾흔지라맛당히대군을지휘하야목목이에위썩고잡을가하느이다던지

허락하시니 원슈십이방군스를들녀 하란산전후좌우로도라가며 요해처를곳곳이미
 북하고대군을호령하야 불을노흐며 급히치니 함성은던디를뒤집고포향은산곡이진
 동하야 하란산삼여리에비금주쉬현영치못하더라 홀연중봉에니르러 광풍이대작하
 야나 무를빠히며 돌을구을녀독흔괴운과모진바람에군시눈을뜨지못하거늘 양원슈
 대경하야홍스마를보아왈이논반드시귀물의작란이라엇지면도호리호홍스매왈척
 발날을불녀무러보스이다하고즉시청하야혈문흔대척발날왈쇼장이또흔십분저세
 치못하오이다마논이산일흔이하란산이니산상에홍노하란왕의신뢰잇슨자오래더
 니팔구년이리로홀연수십귀요귀묘중에웅거함애그중일귀요귀안석이절다하야저
 호왈쇼보살이라야올이흔번보고대혹하야언지를죽이고쇼보살로언자를삼아언령
 계용하나그요귀중시하산흔이업고다만묘중에잇서선우를빅단으로호리니북방의
 근화근이라선위중국에나올때쇼보살을청하야긋감을말하되알향산중을떠나지
 아니하더니반드시야요귀의작란인가하니다양원쉬홍스마를보며왈이엇자홍도
 국을요란케하든요귀아니나장군이부절업사살녀보낸듯이로다홍스매의아알불법
 이광대하야갑진아잇느니무론초목금슈하고불법을드른쟈는흔번갑진을쳐천축다
 사악업을짓지아니하느니쇼보살이일즉빅운동초당전에불법을듯고홍도국풍전중
 에갑진을쳐쳐거든엇지다시아긋차악업을자으리오쇼장이오허려빅운도스의주든
 바보리쥐그저들엇스나맛당히요물을잡아이번은용서치아나리라하고즉시부용검

을들고동초마달과척발날을거느려하란산중봉에니로니과연광풍이닐며괴이흔괴
 운이사름을침노하느니라홍스매부용검을두루며공중을향하야썩지즘애광풍이더
 옥대적하며모래와흙을날녀지척을불분하니홍스매더옥대노하야부용검을들여하
 늘을긋쳐두번두루고긋만히입가온뒤로진언늘넌하더니광풍이침식하고수키요
 귀산상으로와슈중에각각명귀를잡고그중일귀요귀오석옷을넌고분면홍장이적실
 혼쇼보살이라홍스매대매하며수합을싸호다가홍스매쌍검을들여흔번침애쇼보살
 이즉시화하야천빅쇼보살이되느니라홍스매대노하야왈요물이엇지내압히이긋치
 무례하노하고슈중쌍검을흔번흔들매경각간에천빅부용검이되야쇼보살을치려하
 더니홀연공중에셔위여왈홍장군은칼을거두고슈고치말으쇼셔데저스부의명을받
 즈와요물을잡으러왔노라하거늘동마량장파홍스매우러러보니일키녀저슈중에적
 은호로병을가지고공중으로느려와홍스마를향하야저비왈장군은별리무양하시니
 잇가하거늘저세보니이또흔쇼보살이라홍스매량중의보리슈를내여손에들고대매
 왈요물이엇지감이나를롱락코저하느다쇼보살이쇼왈장군의총명하심으로엇지진
 가를분변치못하시니잇가데저맛당히요물을잡아장군의노하심을위로하리이다
 하고흔번근두쳐변하야푸른여희되야암상에올나안즈며흔번취파탐함애일진광풍
 이다시모래를늘녀며수십귀요귀일시에되여바회아래머리를조아죽기를청하쇼
 보살이호령왈업축은셀녀본형을드러낼저어다하니수십귀요귀일제이몸을근두쳐

변하야수십마리여회되야드리를살고되리를흔들며살기를이결하니쇼보살이이에 호로를흔들기우리며대즐왈업축은셀니드러갈지어다하거늘모든여회일시에이 이슌히올며병속으로드러가니쇼보살이바야호로호를거두고홍스마압히와쉬려 샤레왈데지향일홍도국싸홍에장군의즈비하심을납스와망념을세치고공덕을다가 서련에도라가증승의모양을벗고영영극락을누리오니는다장군의주신바라엇지 감히다시인간에현영하야악업을지으리오더수십기업축은전일데즈의다뤄라데지 서련으로가며십분당부하야동학을직히고작란치말라하얏더니제도로혀데즈의일 흠을비러쳐에와야료하니이는데즈의슈치라데지스부의명을밧아잡아가오니장 군은대공을힘쓰샤인간공덕을다그신후서련으로도라오신즉반드시퇴을가하느이 다언필에거세업거늘동마량장은당황이섯고홍식마는미쇼하더라홍스매대군을동 독하야하란산에위싸고더욱급히철시양원쉬대노왈일기공훈도적이산간에드러트 거늘빅만대군이그머리를취치못하니이군령이엄하지못함이로다하고천히진왕 과제장을다리고산하에니르러북을치며피세를도도니대군이일제이남할하며남글 버히고돌을굴너궁시창검은풍우와치조치고되고합성은벽력이느린듯엄숙흔피 세와웅장흔거동이죽히하란산을흔들며싸힐듯하더라츠시선위힘이진하고계괴궁 흠에다만분독흔피운과홍영홍용뎡을부탈곳이업서럴창을손에들고일성고함을우 뒀고치지르며밍호와치내다라워여왈과인이용력이부족함이아니라하늘이돕지아

니심이니원컨대명원슈와흔번싸화즈웅을결단코져하노라흔대되런풍이대노하야 쉬지저왈원쉬엇지너와흔더러온오랑캐로접전하시리오야의로병흔도채를맛보 라하고바로선우를향하야달너드니선위노안을부릅뜨고럴창을들어흔번대전대런 풍이선우의럴창쓰는법을히득지못하고도채를들너막고져하더니일천근장창이살 고치드러와도채대를경각간에부러찌리고물머리에느러져물이업더전대런풍이락 마하며선위다시일성을지르고뛰여드러와런풍을안고주머귀로서로두드리니선우 의홍영흠은주린여회범을다돌고런풍의용뎡흠은스지코기를싸리느듯흔번밀 치고흔번뛰놀며압호로다라들고뒤호로물너서니두줄기분흔피운이하늘을새칠듯 일장을박전하니츠시연왕이진왕과제장으로전전에서브라보며만일런풍이당치못 하느피식이잇거든서로구하라하더니홍스매일지련을보며왈장군은쇼년이라눈이 북을지니더거동을보느냐되장군은로의라손의힘이업서선우를자조노치고선우는 흥녕하야흔번되장군을붓든즉노치아니하니내맛당히선우의잡은손을쏘아되장군 을도우리라진왕이대경하야말너왈과인이비록홍장군의궁지를모르나방금더와치 싸화서로붓들며서로두드리니분분흔주머귀와마조잡은손을멀니서브라보고엇지 분간하야쏘리오만일그릇마천즉랑패홀가하노라홍스매미쇼하고만히히리에찬 살을싸혀옥슈를흔번득이며흐르는살이별와치드러가선우의런풍을붓든손을맛 침애선위놀나여런풍을늦코손을씩리치며좌슈를들어살을빼라하더니홍스매다시

활을 당겨서 위소리나는 곳에 들채대 드러가 선우의 왼편 손을 맞침에 진왕과 제장이
일시에 칭찬하며 선위 두 손에 살을 맞고 더욱 분과 총련하여 뛰놀거늘 댤풍이 추시를
두부러진 도채를 잡어 선우의 뒤편을 친대 선위도 호련창을 다 시들고져다가 손이 임
의 상흔지라 들지 못하고 혼마 뒤소리를 지르며 싸에 업더지니 양원쉬대군을 모라 엄살
하고 야를 선우의 머리를 버혀마 전에 달고 도라와 댤 조고 혼대 댤 지이에 흥포금갑에
대우전을 차시고 선우 뒤에 오르샤 야를 선우의 머리를 디 상에 달고 북방제국에 조셔하
야왈

嗟爾匈奴土蕃蒙古女眞王 天時 大國 侮謾 朕 百萬大

軍 如熊如虎 如豺如豕 天兵所過 莫不震動 土崩瓦解 雷

厲風飛 耶律單于 單于臺 嗟爾諸王 異心 雷

能히 댤 병을 항거 할 재잇거든 군사를 거느려 승부를 결하고 만일 그러치아니 혼족 쉼

니와 조회하라 오논 자는 샤 죄하야 호왕부귀를 누릴 거시오 항거 혼족 장차 대병을 모

라 혼북에 못질너 선우와 다름이 업스리라 抗拒 大兵

댤 지 조셔를 느리신대 댤 번 등 삼국이 조셔를 보고 모다 송구하야 일시에 니르러 돈 슈청
죄하되 혼노몽고왕이 병들다 하고 오지아니하니 진왕이 출반 주왈 몽고는 북방 중강 혼

오랑캐라 이 못치 무례하니 만일 그 저둔 죽었지 씨스 이 팔만을 호령하리 잇고 북원 폐하
는 신을 정벌 일 만기를 주신즉 맛당히 몽고 회를 쳐 처북히 씨지 니르러 호군을 소멸하고
도라올가하느이다 연왕이 주왈 진왕의 말 숨이 비록 당연하나 댤 지해막 비왕되 오솔
도 지뼌이 막 비왕신이라 북방 백성이역시 폐하의 적 조창성이 어늘다 시 병혁을 일삼아
그 어육됨을 도라보지아니 신즉이 엿지 댤 디 호성지덕에 손상치아니 리 옠평 혼노몽고왕
이 선우의 린국으로 일즉 군사를 빌너 댤 조에 득죄 흠이 잇스오니 조셔를 받조와 조 겁지
심이 엿지 업스오 리 옠평 선왕은 덕으로 빗최이 고군사로 치지아니하느니 춘성 추살하고
일장일이 는 원방을 교화하느니 썩 썩되라 임의 위엄으로 선우를 버히셨스니 다시은덕
으로 제국을 감화하샤하야 고품은 위병형하게 하실지라 북원 폐하는 다시 몽고왕에게 조
셔하샤 그 죄를 사하시고 효유하야 부르신 후 일향완거 혼족 대군으로 씨더 하심이를
가하느이다 댤 지 연왕의 말을 조츠 사즉시 조셔를 느리외 부르시니 몽고왕이 이에 휘하
병수 천기를 거느려 댤 지 전에 니르러 인심을 목에 미고 항례로 썩 썩 죄하거늘 댤 지 위의를
베풀고 몽고왕을 장하에 붙닌 후 양원쉬 댤 조의 명으로 수 죄하야 왈

北方 處 中國 衰 無端 單于

네 북방에 처하야 중국 의 더점하심이 죄치아니 거늘 무단이 군사를 빌너 선우를 도아

댤 하를 요란케 하니 그 죄하나 히 오 댤 지 호성지덕으로 대병을 더하 지아니 시고 은혜

로 부르시거늘 감히 칭병하 고 조회치아니하느니 그 죄들이라 이제 야를 선우 버히든 칼

大鵬國、赤境國、大猶國、俱沙國、攝理國、廣野國、

이오히려무디지아니하거늘네장춧엇지도망코져하는다
 양원슈수죄를다함애몽고왕이삼비고두하고샤례왈신몽고왕은북회라엇지대국을
 항거하리잇고다만린국지의에팔연치못하고또호선우의위세를잡하야군스를발넛
 스오니엇지그죄를아지못하리오스스로부월지슈를기드러니의외조셔로부르시
 니신이일변갑하고의심하와감히조회에나오지못함이라이제두번던은을넛스와
 곡으로부르시니신이비록이덕지인이오나엇지감동치아니하리잇고만일대죄를샤
 하샤북방을진압하라하신즉신이맛당히제성성이전조전손하야이심을두지안일
 가하느이다연왕이다시던조의명으로몽고왕의죄를샤하고물너제왕처소가명을
 기드리라하니라치던지천정하샤선우를버히시고몽고도번내진삼국이일시에조
 회함을듯고북방에멀니잇는쇼국이모다두렵고조심하야성야로니른재무수하니그
 중일홈아논나라히대봉국적경국대유국구스국섭리국광야국이라십여국호왕이각
 각우양타타와도디소산을가져일제히던조외조회하리던지다시용복을조초고선우
 디에오르샤제왕을군례로보실식구를장막은하늘에다앗고기치창검은일광을그리
 온중예의장문물이보랍을시위하야빅모화월이좌우에버렸는디룡준일각에룡조봉
 표로하늘조치안조신이논이에대명던지라옥면취훈의괴상이동탕하고슈미봉안의
 풍취발월하야운쇼명월이광치를늘니며창히신룡이운우를닐히여호번성넛애상설
 이만공하고호번우음애츄풍이동인하야슈중에슈기를들고산악조치안저던조를외

신자는우원슈연왕이오옥외당당하고풍류번화하야길상흔괴운으로좌편에안존자
 는좌원슈진왕이오팔조청산에슈기들씩엇스며도화량협에츄광이무르녹아별조흔
 눈은믹믹하야십분아릿답고철분링렬호중성관전포로쌍검을차고회미히선자는우
 스마란성후홍흔달이오호치단순으로아미를숙이고슈습흔티도에당돌흔괴식으로
 쌍창을잡고선자는표기장군일지련이오미목이청슈하고풍되용용하야방던극을들
 고엄연이선자는좌스마병부상셔소유경이오팔척장신에일골과례격이충릉하고빅
 슈풍진에로당의장하야도채를빛기들고범조치선자는전부선봉되던풍이오위풍이
 름름하고거지효용하야창검을잡고좌우에시립흔자는년전좌우장군동초마달이라
 기여제장이각각공시를차고용복을조초아츠레로시위하니황금갑옷은히빛에쏘이
 여안목이현황하코비단기발은풍편에너부쳐서기령롱하더라원슈복을치며슈기를
 들너진을변하야일키오방진을일우니남주작붉은괴는남방군스를거느려정남방에
 진을치고북현무검은괴는북방군스를거느려정북방에진을치고좌청룡푸른괴는산
 동군스를거느려정동방에진을치고우빅호흰괴는산서군스를거느려정서방에진을
 치고중앙방누른괴는황성군스를거느려던조를호위호환후황룡기를디압히세우고선
 우의머리를괴우에다랏스니군령이엄숙하고부외정제하야지척원문이바다조치
 더라이우고일성포향에진문을동기하고십여국호왕을츠레로불너드릴시엇지드러
 온고하회를보라

데스십회

명던지크게산양야호왕을모도고
홍스매검술로악호를잡다

明天子大獵會胡王
紅司馬劍術捉惡虎

각설명던지진문을동기호시고모든호왕을군례로보실서특별이하교왈야를선위던
명을거스려스스로부월지주에나아가니그나라를진압할채업는지라호장척발날이
던쵸에귀순야충순공근고인고지국이북방을진딩하리니척발날로써대선우를
삼으라호신대척발날이돈슈스양함을마지아니호거늘던지덕욱의특히녀이사군례
를지축호시니대선우척발날이하몽고왕도변왕너진왕대봉왕적경왕구사왕섭리왕
대유왕광야왕십여국호왕이츠레로드러와던지씩군례를못고동서분좌훈후군악을
드러승전곡을아되며대군이일시에개가를부르니던지진동고산천이상응야만
공의풍우를일윳고빅일에퇴성이느림호흔지라던지어답에나안즈사래아검을압히
노호시고던위엄숙호시며육식이씩씩호사제국호왕을보시며하교왈

짐이던명을밧즈와스히팔역을주장호고역^{德兆蒼生 教化}조창성을교화호니던무이일이오디무
이왕이라^{天命}경등이^{卿等}짐을거스림은하늘을역함이오^逆짐을순이^順함은하늘을순히^順함이라
짐은다만던명을밧들어그^{天命}순환자를포^{褒獎}장호고그^逆역환자를버^逆칠지니^卿경등은삼갈지

어다

던지하교를다호신대모든호왕이일시에고두호며속연히명을듯고감히우러러보지
못호더라인호야삼군을호케호시고군례를파호실시던지다시하교왈짐이오날은제
왕을군법으로봄이라명일다시하란산아래렵장을다고크게산양야제왕과호변놀
고저호노라호신대모든호왕이고두사례호다라익일던지다시용복으로대완마를두
시고하란산아래너르심에양원취임의렵장을다고단을모아대군을결진호엇더라던
지단상에던좌호시고제국호왕을명호사단에올나좌를주시며던안에화기룡룡호사
왕짐이금일은경등과종일놀아서로정의를동코저함이니경등은그리알라호신대제
왕이황공사례호더라그중몽고왕이몸을나러던지척청왕신등이북방이덕지국에성
장호외대국지풍을자로보지못호중일죽듯조음에연왕과홍란성은던하명장이라남
만이지금서지홍원슈를말호죽락담상고호다호오니신등이비록불감호오나연왕의
진법과홍원슈의무예를호번구경코저호니다상이미쇼호시고연왕과란성을보시
니연왕이호왕을향호야흙신답왕창국은두초지라중국에창곡호흔자느거지두량
이니맛춤남사람이다만창곡과홍원슈를보고중국인지를다보지못호이라방금성
던지우히림호사인지를각승호이니쇼딩으로말호진대섭리음양호야론도경방호은
무비다고요직설이오빅성을다스리고공풍속을교화호은더마다공황두쇠오문장은반
마를압두호고말숨은소장을조롱호며도호은공뎡을스모호고스업은한부를하시호

阜陶、稷、
契、龔、黃、
杜、召、潘、
蘇、張、孔、

孟、韓、富、孫、吳、虞、諸葛亮、孟賁、烏獲、衛青、霍去病、程不識

며장슈로 말하길 진대손오양저의 병법과 주유제갈량의 지혜와 밍분오학의 용맹과 위창
 과거병정불식의 장략을 겸흔재무수하니 창곡은 불과 괴를 두루며 북을 쳐 룩 혼용장
 이라 엇지 족히 말하배잇스리 오몽고왕이 구연왕과 인이 중국을 구경할 놀이 업스오니
 다만 원슈의 진법을 혼변보고 저하느니 다 양원슈미쇼하고 홍스마를 보아 슈괴와 신전
 을 싸혀 주며 진을 치라하나 홍스매즉시 진상에 나아가 일성포향에 대군을 모라 북을 치
 며 슈괴를 들너 련하야 일기 방진을 치고 몽고왕을 보며 왕대왕이 이 진을 아느니 잇가하
 니 원티 모든 호왕종몽고왕이 약잔병법을 허득흔고로 원슈의 소문을 듯고 짐짓 진법을
 혼변보고 저하미러나이에 쇼왈이논넷날한나라 장슈위청의 무강진이라 북방의 가동
 주졸이다아느니 파인이 엇지 모르리오 홍스매미쇼하고 다시 슈괴를 두루며 북을 쳐진
 계를 변하야 좌우익을 버려일조진을 치고 몽고왕을 보며 왕대왕이 이 진을 아느니 잇가
 몽고왕이 쇼왈 병서소위덕진을 쇠살하느니 도익진이 아니니 잇가 홍스매미쇼하고 다시
 슈괴를 두루며 진계를 변하야 룩 룩 삼십륙여섯곳진을 치니 몽고왕이 이윽히 보고 단왈
 과인이 일즉이 진일흔이 룩화진임을 드렸스나 진치는법을 구경치 못하얏더니 진실로
 괴이 혼진이로 소이다 홍스매또미쇼하고 슈괴를 두루며 북을 쳐 팔팔육십스팔방으로
 진을 치니 몽고왕이 브라보고 정신이 현란하야 량구에 왈이논무슨진이니 잇가 홍스매
 쇼왈이진일흔은 괴정팔문진이니 전혀팔괘음양지리와 연디 조화지묘를 응하야 괴정
 문동정문과 음양문성스문이 잇스니 대왕이 진종을 구경코저하실진대 다만 저북은 괴

셴진문으로 드러 푸른 괴 셴진문을 나가되 만일 그릇혹빅괴 셴진문으로 출입 혼즉 랑패
 하리이다 몽고왕이 대희하야 제왕을 보며 또치가 구경함을 청하대 모다 응락하고 각각
 본국군스빅여괴를 다리고 진전에 나르러 바로 북은 괴를 차자 진중에 드러진 천제도를
 보니 항외 엄숙하고 괴치정제하야 각각 방위를 응하야 원문을 일웠스나 현묘흔 괴치를
 허득지 못하네라 보기를 다 혼후 푸른 괴 셴진문을 차자 일시에 전박개남애 몽고왕이 도
 변왕을 보며 왈이진이 비록 정제 엄숙하야 착란치아나나 별로 심분 혼흔 곳을 보지 못
 할지라 다 서혹빅괴 셴진문으로 드러가 봄이 엇더하노 첩발선위 만류왕 홍스매 말하지
 아닌문으로 출입 혼즉 랑패하리라 하얏스니 대왕은 드러가 지마르쇼서 몽고왕이 웃고
 도 변왕을 보며 귀에 다이고만히 글오티 중국사람이 헛포장이 만코 홍스마를 봄애 저
 괴만면하야 우리를 룩락함이니 무슨 랑패함이 잇스리오 하노 첩발날의 다 겹함을 쇼쇼
 하며 제왕이 일제이 후괴 셴진문으로 들입하야 심여보를 드러서 뒤를 도라 봄애 진문이
 업고 검극이 서리노 혼중 압흔 보니 또 혼터진길이 분명치아나하야 수리와 방패를 중중
 텅텅이 막앗스니 괴치 창검이 허빳을마리와 습습흔 바람과 쇼슬흔 괴운이 스면에 자욱
 하야 운무중에 싸인듯 정신이 미란하고 안목이 현황하니 갈바를 모를지라 동을 향하에
 혼문이 열니 거늘 그문으로 드러선즉 그문이 닫치이고 서을 향하에 또 혼문이 열니 거늘
 그문으로 드러선즉 그문이 닫치여 팔팔육십스에 쇠내방위를 도라스 팔삼십이 설흔 두
 문을 드러가되 문마다 검극이 서리노고 드러선즉 나갈길이 업는지라 몽고왕이 대노왈

이논명원쉬게술로과인을속여죽이고저함이로다분원이휘하군을도라보아향방업
 시춤코저하나쌀을같이업고모든명병이일시에병기를들어찌르라하거늘몽고왕
 이노왈우리는런조의명을바다진중을구경하라온사람이라엇지이긋차됨박하는다
 군문도위척왕군중은단문장군령이오니대왕이그릇스디에드러도다만일훈문을더
 드려간죽빅호방이라비록두는래달녘스나살아도라가지못하리라훈대그중대유왕
 광야왕이서로손을잡고대성통곡왈우리는쇼국잔왕이라각디에엇지이긋치죽을줄
 알앗스리오하더니치호스매동마량장을명하야왈제국호왕이오래도라오지아니
 하니반드시스문에드러나오지못함이라장군은가구하라량장이죽시물을달녀바로
 칭문으로드러브라봄애모든호왕이빅호방에둔취하야아모리힐길을모르거늘량장
 이급히웨여왈호왕은망녕도이춤코저말고내슈기두르는곳을보와나오라훈대제
 왕이일시에량장의슈기를보라보고압섬을다도와길을차자나올시다시팔팔륙십사
 방위를지나스팔삼십이문을나서니임의진밭게나와더라모든호왕이서로놀나며탄
 식하고도라와양원슈와홍스마를보고샤레왈과인이변방쇼국에성장하야안목문견
 이정더와와다름이업습더니오날원슈의진법을구경함애바야흐로중국이큰줄을알
 니로소이다원쉬쇼왈이논심상훈진법이라엇지죽히청도하리오내또흔드름애북방
 사람이산양을잡하더니제왕은각각본국군사를거느려장기를다하야런조의즐기
 심을돕게하라제왕이훈연응락하고모다렵장에느려산양힐거조를치리니연왕이또

훈진왕과단에는려군사를지휘할시런지단에림하샤구경하시더라연왕은홍란성퇴
 려풍일지런동초마달을거느려우림군삼천기를지휘하야우편에서고진왕은본국털
 기삼천을거느려좌편에서고제국호왕은다각각데군사를지휘하야좌우로갈나선후
 선위대군을풀어하란산전후수십리를위싸고즈승을물게하니과치창검이들에덤
 히엇고되고함성이피를뒤집어우흐로는재와아래로과는즈승이모다놀나곳곳이
 편만하더라훈연일쌍빅되운잔에놓히는라지나가거늘동최호왕을보며왈내드르니
 북방사람의샤도하는법이신중하다하니훈번구경코저하노라몽고왕이웃고물을달
 니며활을다리며훈번쓸애그빅되맛지아니하고더욱놓히는라되지아니훈대몽고왕
 이물을돌니며쇼와과인의궁법이부족함이아니라빅도의느라감이썩르도다하거늘
 홍스매일쌍추파를믹믹히홀녀빅운잔을우러러보고허리에빅우전을싸혀훈번우슈
 를번득임애일기빅되반공에찌러지거늘호왕과호병이서로보며놀나왈우리비록샤
 도로늘었스나더긋치놓히는빅도는성의치못하얏더니홍장군의궁지는양유기로
 당치못하리도다하더니홍스매다시물을달녀가며공중을향하야또훈대를쏘니빅
 도와살이도모지거체업는지라몽고왕이쇼와장군의궁법이아모리신중하나이번은
 허송하셔도다홍스매미쇼하며물을돌녀오더니이오일기군세를달녀오며빅도
 를가져홍장군찌드려왈쇼디는즈승모든군셔라훈연일기빅되공중으로찌러지거집
 어봄애썩리밋히살이박히이고그살을보니홍원슈의신견이라감히밧치는이다하니

원리됨되살을맛고느라가다가떠러짐이라홍스매쇼왈내눈이복지못하고빅되놓히
 늘매어림야쏘앗더니당쳐를맛치지못할연피라호왕과좌위막블대경하더니홀연
 또봄애일진히연이바람을싸라공중에느라일상일하하니몽고왕이마상에서보라보
 고제왕과짓거리며웃더니홍스마를향하야왕장군의궁법이신출귀몰하시니능히더
 제비를쏘아맞치시리잇가홍스매미쇼하고우러러보니과연륙철기제비풍편에상하
 하야반공에돌며훗치지아니하느니라만히허리의털전을짜혀쏘고져홀대몽고
 왕이우으며소매를잡고왕장군은과인과내기를명하스이다장군이만일더제비를쏘
 아잡으신즉과인의탄말이대완소산이라장군씩박철거시오만일잡지못하신즉장군
 의차신쌍검을과인을주소셔홍스매침음량구에허락하고허리에찬털궁을글너털전
 을매여정신을모아별곳흔눈을글너며옥슈를흔번번듬임에일기히연이마전에떠러
 지거늘홍스매련하야닐곱대를말함애그썸름이풍우곳흔지라륙철기히연이차례로
 떠러지니몽고왕이망연이서서정신을일코반향을무언타가탄왕장군은신인이라범
 상하신사름이아니로소이다이제비는등한호제비아니라이에희상석연이니부히가
 에연석이라하느돌이잇스니미양바람이날나홀죽공중에느라제비와방블하니그일
 흠이석연이라장군은집어보쇼셔하거늘홍스매좌우를명하야집어오라하야봄애과
 연검은돌이든단하기쇠곳기키히살족자국이완연하더라몽고왕이지삼차탄왈한
 나라리장군이부평싸에산양하다가수플속의바회를대호로알고쏘아살이속까지드

李將軍 北平

러가자국이지금까지잇고북방에상전하야천고의무쌍흔궁법이라하더니이제홍장
 군의지조느리장군에십비더하셔도다수플속의바회는오히려쳐치려니와공중의느
 논돌을엇지나트하쏘아썩를배리오하고즈그들물을받치라하니홍스매쇼왈흔탈이
 비록대왕의부귀를당치못하나오히려부중에십여필대완매잇스니일시희연을고집
 지말으쇼셔몽고왕이하마하야친히곳비를글너드려왈과인이즈금이후로장군씩성
 심으로항복하노니이물이쥬함이아니라향모하느정을표하느이다홍스매홀일업서
 밧으니라이때대군을풀어증성을몰시일좌하란산을삿삿히뒤지나흔마리독기업는
 지라몽고왕이원슈씩고왕이느반드시악할증승이산중에잇서호표지속이숨고현영
 치못함이니이다언미필에홀연하란상봉으로급흔바람이닐며일성벽력이반공에
 느림고더니제군이일시에납함하고스면으로훗치지며일기대회전신이눈빛고두
 눈에금광이쏘이여등잔곳치구를며쥬홍곳흔입을버리고바로렷장으로다라드니그
 형세풍우곳치썸름이번개곳거늘십여국호병이일제이창을들고조춘대그대회다시
 홀마티소리를지르고잔곳이업는지라모든호왕이서로보며송구왕이엇지야틀선우
 의털창을삼키든홍물이아니냐북방에일기화근이성기니인력으로제어치못할바라
 하란산동북에일좌홍험산이잇서일흠은음산이오산중에일기악회응거하야전설
 이스천년을묵은대회라하니야틀선위용력을밧고이대호를잡고져하야세번산양하
 야털창을더진즉그홍물이천여근털창을초개곳치삼키고호장호병을전후에상흔재

陰山

長城

부지기쉬라 할일업서 부방사람이 서로공론하고 음산에 단을 모아 춘추로 우양을 잡아
 흥물에 게제하되 만일 흥번결흥물 이 산하에 느려 인명을 상함이 빅비더 하느니 임의
 죽은 채수 천여명이 라 그 후로 부방의 산양을 폐하고 비록 다른 범이라 도 감히 경솔이 잡
 지 못하더니 금일 던져 대렵하심을 인연하야 포향고성을 듯고 다시 작란함이 토소이다
 흥스매 쇼왕장성이 북에 몇나라 이 잇서 잇지 일기 악호를 잡지 못하리 오몽고왕이 탄왕
 이 범은 심상 흥물이 아니라 소위 비희니 비록 창으로 찌르나 창이 들지 아니하고 불로
 살으나 불이 범치 못하니 바람 췌치 췌르며 벽력 췌치 급하야 그 왕리를 알길이 업느이다
 던지 초언을 드르시고 하교왕 부방벽성이 또 흥짐의 적지 창성이 라 잇지 무죄히 증승의
 밤됨을 보고 구원치 아니하리 오짐이 비록 대군을 머 무려 즉시 환국지 못하나 이 대호를
 잡아 인명을 구하고 도라 가리라 하신대 연왕이 이에 성지를 밧조와 제장과 호왕을 디하
 야 대호잡을 방략을 의논하더니 흥연대군이 다시 납함하고 스면으로 하여 지며 하란산
 중봉에 사척이 들니 여공중을 덤혀 오거늘 몽고왕이 경왕흥물이 또 작란하느도 다언미
 필에 수키 호병이 몰쳐 잔곳이 업거늘 흥스매 일지련을 보아 왕우리 곳하야 창법과 검술
 을 자랑코져 함이 아니라 더 죽성의 괴세 심분 흥녕하야 사름을 만히 상할 듯하느 잇지 안
 연이 안져 보리오 내 장군의 창법을 아노니 우리들이 동심합력 흥즉 잇지 못잡으리 오일
 지련이 쇼왕장군은 스스모 밧잇는 배 잇거니와 첩은 다라 나느 특기 만보아 도 놀나느 재라
 엇지 서로 도으리 잇고 흥스매 또 흥웃고 원슈씩고 왕축성의 작란 함이 이 췌스 오니 심상

흥방략으로 잡지 못할지라 대군과 제장을 모화련조를 호위하서 고령장에 일인도 업서
 흥신즉 쇼장이 일지련과 약속함이 잇느이다 연왕이 다 황왕장군이 장촉엇지라 하느다
 흥스매 쇼왕요마로 호를 임의 소장 장중에 너 헛스니 근심치 말으쇼셔 하고 즉시 징을 쳐
 군스를 흥곳에 모화단을 들너 중중히 호위하게 하고 연왕과 진왕과 모든 호왕과 동마 등
 제장으로 다 만단상에 올라 던조를 되시고 망녕도 이 단에 느리 지 말라 하느니 령장중에 일
 인도 업더라 흥스매 일지련을 보아 왕장군은 필마쌍창으로 다 만범을 인유하야 령장에
 너으라 하고 흥스매 또 흥단에 올라 조약히 섰스니 츠시 일지련이 쌍창을 들고 물을 달너
 두어 박회를 도라 든이다 가 흥연물을 채쳐 바로 하란산을 향하고 표언이 가니 보는 재위
 하야 정신이 송구하고 안식이 저상하더라 이윽고 청련에 벽력이 느리느듯 흥마디 흥녕
 흥소리 하란산을 흥들며 일지련이 쌍창을 썰고 일변다라 오며 일변 들쳐서 일기 대호를
 쌍창으로 일우니 그 대회 눈빛은 흥회렐을 거스리고 벽력 췌치 소리며 두발을 들고 산
 약 췌치 너러서 쌍창을 막으며 범은 령랑을 일우고 령랑은 범을 일워 범이 물너 선즉 령랑
 이 다라 들고 령랑이 물너 선즉 범이 다라 드러 흥녕 흥소리 와 당돌 흥거동을 모골이 송연
 하야 춤아 불길 이 업더라 임의 령장에 들매 흥연 단상에 서 웨여 왕련 표고는 썰니 물너 나
 라 하거늘 령랑이 돌쳐 창을 거두고 단에 오르니 다 만습 흥바람과 분분 흥벽설이 령장
 을 둘러 스면이 자욱 흥중그 범이 동으로 뛰놀며 서으로 다라 나고 남으로 포갈하며 북으
 로 물너서 흥번침듬에 하늘이 문혀 질듯 흥번협 울며 싸이 췌 절듯 길 이 뛰며 박차고 작

란호되종시렵장을나지못하니이논범이임의홍랑검술에싸임이라반향이못하야청
 괴렵장을던쳐오며징연호갈소리점점급하더니그범이홀연호마뒤소리를벽력갓치
 지르고압발로싸을두어길이나판후렵장가온대죽구려안져다시성각이업거늘초사
 단상단하의브라보는재모다심담이셀니고정신을추리지못하야엇지호곡절을모르
 더니홀연단상에셔웨여왈우림군은셀니가더범을쓰오라하거늘모다보니이에
 홍랑이의구이섯든자리에외섯거늘모든호왕이막불당황하야다다도와홍스마를붓
 들고문왈장군이그스어디를갓다가오시며더범이엇지더갓치안져요동치아니하
 느니잇가홍스매쇼왈혼탈은잠간여축하얏다가왔거니와더범은임의죽은지오랜가
 시부니쓰오러오라하야보쇼셔호왕이알변놀나며의심하야호병을호령하야매여오
 라하니모다겁하야감히갓가이가지못호대호왕이대노하야셀니쓰오러움을지축하
 니수십명호병이일시에달녀드러운동코저하나태산갓치무거워움지가지못하고다
 시륙칠십명이쓰을며써들어단하에너르니호왕파제장이일시에느려가봄애그범의
 녕득흥은말할배업스나타력이침똥갓호여손에다온죽손이상하야피호르고허리에
 일편취육이달녘스니모다말하되이논범의늘키니소위비회라전신을찬찬이숨혀보
 니갈흔적이랑자하야호조각성호가죽이업고골절이스스로물너난것갓거늘홍스매
 미쇼하고동마랑장을보며왈이논실로런디간모진괴운을품부하야싱긴잠승이라그
 든든함이금석에다하니만일혼탈의부용검이아닌즉결단코잡지못할지라장군은시

협하야창으로썰너보라몽고왕이즉시갓치허리에찬환도를싸혀흔번침애환되징연
 이부러지고렐똥도상치아니하거늘모든호왕이일시에창을들어어즈러이썰으나창
 날이낮낫히말니며흔적도업더라호왕이일시에손을뚝거홍스마씩샤레왈장군의영
 응하심은진짓연상신장이시라감히말삼하야칭도홀배아니오나악물을잡아북방벽
 성의화근을업게하시니천추만세에이러하신은덕을엇지갓치리잇고홍스매스양왈
 이논다화상의은덕이오대왕의복력이라호탈이무슴공이잇스리오하더라일모후련
 지면렵을과하실시군스를크게호괘하시고십여국호왕을단상에오르라하샤각각주
 찬을주시며련안에화호고운이갓득하샤왈경등이지금중국군스를볼애북방과엇더
 하노호왕이돈슈왈신등이변방에성장하와련갓위의를구경치못하얏습더니종금이
 후로하늘놀음을알지라상설우로의춘싱추살하심이무비폐하의교해로소이다련지
 이연이쇼왈친시황은천고의미련호인군이러부질업시만리장성을싸하남북을막으
 니풍괴현슈하고정의를통치못하야중국과북방이자로병화를날희여져갓창성으로
 그해를밧게하니이논짐의홍호하노바라경등이이모음을알아다시반복지말고호왕
 부귀를세세이누리게하호왕이일지에돈슈샤례하고감루를씩리더라몽고왕이다
 시련갓치청와폐해이제북방에천림하심애은위병하샤북방벽성이갓모를뵈움갓
 스오니신등이이제성스당을지여어움을모화함은비록불감하오나양원슈와홍스마
 의쇼상을머드러천추향화로빛난공덕을기록할가하느이다상이미쇼하시고허락하

시니 호왕이 물너와다 시연왕과 호스마를 보고 청하거늘 연왕이 비록 엄절히 사양하
 엿지 드르리 오즉 시복방화스십여명을 불너 연왕과 호스마의 쇼상을 모사할시 모든 화
 서문져 연왕의 진면을 모출후 호스마의 화상을 낼시 세번내야 세번긋지 아니흔지라
 모든 화서붓을 더지고 호왕씩고 왈 신등이 저죄 용렬하와 호스마의 진면을 모방할길
 업느이다 하거늘 호왕이 대노하야 버히라 할대 그중일기 화서고 왈 신이 이제 놓흔화스
 를 천거하을 지니 이는 연하에 독보하느니라 또 하나히 빅여 세에 지나능히 용모를 보
 고 슈복을 판단하느이다 몽고왕이 대희하야 밤비 불너 느니 슈미호 빅하고 안목이 청
 슈하야 심상한 화서아님을 알너라 호스마를 이윽히 브라고 탄왈 앓갑도 다 알골이여
 만일 녀조로 낫스면 부귀 혼업이 천만고에 덩홀재 업슬거슬 불행이 남조로 품슈하니 슈
 한이 부족하리 로다 호스마 쇼알그디는 화서라 엿지 상술을 아느뇨 화서왈 노신은 본디
 중국 사람이니 한나라한연슈의 후에라 북방에 사로잡히여와 도라가지 못하교 세세조
 손이 화상내기로 조성하니 노신의 손으로 진면을 모화흔재 부지기 쉬라 조연사름을 열
 려하교 일골을 무수이 봄에 엿지 궁달슈요를 짐작지 못하리 잇고 호스마 쇼왈 연주너조
 로 낫스면 슈복궁달이 엿다 하며 남조로 낫스면 또 하리 타하느뇨 화서왈 장군의 알골
 로 만일 녀조로 홀진대 벼슬은 왕후에 밋칠거시오 슈한은 구십구세라 날 곱아들이 슬하
 에 버려 각각 공명이 왕후장상에 밋칠거시오 이제 남조로 낫스니 공명이 흰혁하시나대
 한이 스십을 넘기지 못할가 하느이다 호스마 웃고 연왕의 쇼상을 가져 퇴인대 화서몸을

韓延壽

니러 준슈피석왈 이는 인간 일골이 아니라 진기선종도골이니 그 귀흙은 연하의 들재될
 거시오 슈한은 또 한구십구세로 소이다 모다 칭찬하교 동초마달되련풍이 차례로 무른
 대 화서왈이 좌석에 부귀 슈복을 겸흔재이긋치만 하노하더니 일지련이 밋그로 드러오
 니 화서이 윽히 보고 왈 장군은 엿다 하신귀인이 완대 데국이 홍장군과 방불하시뇨 다만
 량협의 도화석이래 과하니 공명이 홍장군을 당치 못하시리이다 하더라 몽고왕이 홍장
 군의 쇼상을 모화하라 할대 화서제화스를 보며 쇼왈 그디들은 진기눈업는 화서로다 북
 방에서 성장하야 엿지더 용모를 모르고 무단이 필복을 허비하노 홍장군의 쇼상은 입의
 북방에 잇스오니 새로내야 무엇하리오 모다 그연고를 무른대 그 화서미미히 우으며 디
 답하니 무어시라 하노 하회를 보라

데스십일회

홍랑이 명비묘를 중슈하교

위씨추즈등에서 괴로움을 밋다

紅娘重修明妃廟

衛氏受苦楸子洞

각설치시 화서 모든 호왕을 더하야 왈 호왕성북편청초원에 일기고 피잇스니 일흔은 명
 비피라 한나라왕 쇼군의 화상이 잇스오니 이제 홍장군의 용피왕 쇼군의 쇼상과 일호차
 착이 업스나 다만 왕 쇼군의 쇼상은 미간에 잠간 쌍귀흔져이 잇고 두눈의 돌을 흔정치와
 량협의 웃는 빛이 홍장군을 당치 못하리이다 모다 반신반의하야 즉시 쇼군의 화상을 가

青草原
明妃廟
王昭君

白龍堆

韓壽

燕然山

저오라야홍스마와동서샹디야야결고보니두송이삿을흔디디흔듯무르득은춘광
 과아릿다운던형이조화를즈랑야야환에박아내야동으로본즉팔월남포에푸여오
 는련삿이오셔으로본즉십니셔호에반기흔부용이라부용이련삿이며련삿이부용임
 을모르느자는혹부용을가져련삿에비교하며련삿을그르쳐부용과평론하니엇지우
 렬이잇스리오다만북지는초체야야상풍을먹음고남지는번화야야춘광이란만하니
 홍스마는본디다정강개할재라동시너즈로고금이요원하니지척육안이말슴을접할
 듯처디를추연야야추연할루하며진왕을향야야알내쇼군과비록남네다르나동시중
 국사람이라더우흔안식으로청춘고국에단봉월을하직하고황혼청춘이빅룡회에미
 몰야야련성려질이지기를못맞나고천추원혼을비파로화답하니대왕은더쇼상을보
 쇼셔엇지앗갑지아니리오진왕이미쇼왕과인은보건대쇼군의쇼상이앗갑지아너홍
 스마의남즈됨이앗갑도다만일너즈로났다면연왕이비록더우치정대하니반드시황
 금옥을경영야야장군을십습장지하고한슈의향이루설할가져허하니엇지휘하편
 장으로타인을디하게하리오연필에대쇼하니연왕이역시미쇼하더라호왕이인야야
 화스를명야야왕쇼군의쇼상을모본야야싱스당에공양케할대홍스마또흔은즈와치
 단을내여명비묘를중슈하라하니라익일런지연연산에오르샤돌을세워공덕을기록
 하시고환군실시모든호왕이돈황성까지니르러던즈를호송하고원슈와홍스마를
 작별할시눈물을써려춤아떠나지못하더라던지대군을지축하시진연량왕과일반제

汝陰、關

關內

泰山、黃河、太清宮、關、風、雲、慶、會

장을거느려환군실시제군이개를블으며샹군사에니르샤북방군스를노으시고
 태원사에니르샤산서군스를노으시고곳곳이빅성을위로하시며황성에니르샤남방
 군스를노으실시각각제군에쇼셔야야신역과부세를일변당감하시니비록병화를새
 로격것스나안연야야성덕을칭송하는소리우되우되라종묘샤직에헌과천제하시고
 대샤던하하신후론공형상하신킨연왕과진왕은작품이임의높은고로더하시못야야
 식읍삼만호를더하고소유경은여음후를봉하고동쇼마달은관동후관셔후를봉하고
 손야차는황금천일을주시고일지련은아죽가부를딩치못하얏스니너즈의벼슬이부
 직을보아홀지라표과장군은태후의주신바니그디로주고별로당목읍일만호와황성
 데덕과가동빅명과황금천일과치단천필을주고전부선봉되던풍은관너후를봉하고
 연국태야양현은빅의로의병을닐희여태후를보호하니맛당히관작을더할거시보대
 던성이공명을뜻두지아니홀뿐아니라일국태애임의작품이춧스니당목읍오천호를
 주고좌승상윤형문은원로대신이라공로를말할배아니로대모후를보호하니짐이엇
 지공을표호이업스리오당목읍일만호를더하라고던지신면에던좌하샤호종공
 신을인견하실시단셔렬권에성명을기록하고빅마를잡아피를짜어밋세하샤대산황
 하에전즈전손하야공훈을기록하신후다시하교하샤태청궁을곳쳐풍운경회각이라
 하샤천필로데익하시고어용과연왕이하제신의화상을그려경회각에거려아름다운
 공업을천추에유전케하시니라초일제신을모화연석을비설하시고법슈를나와군신

周宣王 漢宣帝

이일시에 잔을 밧들고 만세를 부르니 련지 좌우를 보시며 왕집이 부덕하야 수빅년종새
 일조에 빈어지게 되얏더니 금일경등의 충성을 힘입어 종묘사직이다시 태산반석갓치
 든든하니 빛난 혼업이 족히 주선왕한선대의 중흥함을 짝할지라 일로 보건대 국가운위
 인력으로 못할바야늘 우준훈오랑캐던시를 모르코스스로 부월지주에나 가니 엇지
 우읍지아나 리오신대 좌위일시에 또 만세를 부르며 상표진하하니 연왕이 출반주왕
 고서에 었스되던 난침식라 불이 유왕이라하니 련명을 밧을배아니라다 만덕을 닥글
 지니 국가치란이 미양평안 혼중위티힘이싱기며 위티힘중평안힘이싱기논고로고지
 성왕은 안일함을 경계하야 흥상위티힘모음을 낫지아니하느니 복원페하는 항일연소
 성중에 계시든싱각을 가지샤 금일조신연상에 군신을 디하쇼셔상이 기용왕경의 출연
 은 짐짓 약석지언이라 맛당히 낫지아나하리라 여음 후소유경왕금일조당이 창업지초
 와다름이 업논중간신로군의 당뒤디각에 버려오허려당론을 주장하니 공의 불을 혼지
 라일병로군의 당을 조적에 샅출힘이을 흘가하느이다 연왕이 우주왕왕도는 탕탕하야
 무편무당이 라하얏스오니 페하느다 만착훈자를 쓰시고 불초훈자를 말니하실지니 엇
 지당론으로 쓰현 불초를 판단하시리잇고대법인군의 인지삼이 장인의 지목삼갓스오
 니어진장인은 버리는 지목이 업논지라 페해엇지 직설의 충성과 공명의 도후과빅이의
 청렴과 미성의 신을 가진 후쓰고져하느니 잇가흔가지능함이 잇슨즉그능함을 취하
 며능치못함을 용서하시고 혼가지지죄잇슨즉그죄조를 시험하야 각각 쓸곳을싱각하

伯夷 尾生

시면론도경방과 전국갑병의 소임을 그릇치지아나하리이다 항일로군이 조권을 잡아
 스싱회복이그장중에잇스오니 약훈자는그 권세를 겁하고능훈자는그 보존함을 빼하
 며공곤훈자는그 부기를 스모하야 혹삿을 굽히며그 욕됨을 참아그 문하에 출입하느니 또
 혼인정의 무괴훈일이라 엇지 식목을 가져명절로써련하사름을 일일싱각하리잇고복
 원페하논청탁당론을 못지말으시고로군의 천소를 못지말으쇼셔다 만능을 쓰시며
 현부를 숨히쇼셔상이 청선하시고로군의 문하인이 연좌지를 두려도 망훈재잇거든
 일병사하라하느니라던지다시 연왕을 보샤 왕경의 쇼실선랑의 쇼식을 드렸느나 허상
 허궁에 짐을 하직하고표연훈종적이다시 엇지 됨을 알길이 업스니그아름다운 충성을
 짐이이때것나지못하노라 연왕왕병화지여에스스를겨를치못하와싱스존볼을듯지
 못하니이다상이 차단왕선랑의 지조절개는 죽히훈일로 취탁할지라 위국하야 종의지
 심을 품은 재엇지 음형과 잔새잇스리오 짐이 불명하야 왕세창의 무근지설을 선령하고
 절개잇느니조하야 곱삿을 엇지 못하야 산슈잔에 류락하야 실소환탄식이잇게하느니
 엇지참피차아나리오 짐이이제 장차선랑을 위하야 시비를 분석하고 후빅을 부러히여이
 미훈지목을 선설케하리라하시고즉시왕세창을 엄척하시고조각을근포함을 제촉하
 신대세창이 불승황공하야 위씨에배그만히 통하야 장차대해잇슴을 말하느니 위씨대경
 하야 춘월늘다시 불너척왕네 일즉선랑을 죽이엿다하느니 오허려세간에 싱준하야스
 괴장차뒤집히게되얏스니이를 엇지하리오 춘월이 쇼왕세간만식이로 촉량치못할지

라죽엇는자도혹살아남이잇스니산사름을엇지다시죽이지못하리오하고위씨귀에
다하고만히고왈던지이제조식을급히근포하시니이정히묘흔괴회라부인이만일
천금을다시히비하신즉천비흔괴잇서맛당히여쳐쳐흐리지니선랑이비록천만번
살아입이열이나엇지써발명하리오위씨탄왈황상이선랑을더치고호하시니비록
천금이잇스나엄령지하에일을만일서어도모다가혹탄호함이잇슬가하노라춘
월월대시루설흔죽양해몬져천비에게밋칠지니천비엇지혈후이싱각하리오위씨대
희하야즉시천금을내여주니라일일은던지조회를밧으시더니경요왕세창이주왈
신이성지를밧조와조식을근포하오나종적을담지흐곳이업습더니작일조금성동문
밧쥬점에일기슈상흔너조를잡으니형지모양의심업는조식이라대강혈문하오나
종시성명을로출치아니하고또흔선랑의일을무른죽도모지모르노라하옵기신의
심하와증거할곳이업서혹량민을포착하가하얏습더니황부시비춘월을잡아드러면
질흔죽던녕이향일황부에왔든조식이라하오나신이장촉각별엄형하야곳쳐혈문을
가하노이다상이진노왈비록조당대시아나스관풍화하고황씨는짐의외척지신이
라규문지스를법관으로사히함이불가하니너시욕으로리와짐이천이무러보리라
하시고즉시괴구를긋조치고조식을잡아드러던당에서혈문하실시형벌을더하시어
니하야그조식이일일적초왈쇼녀의성은장이오명은오랑이니조식으로장안에놀다
가연왕양승상쇼실선랑이천금으로구하야황부가가위씨모녀를살해하고오라하기

네승야하야황부에드러갓다가시비춘월에게를킨배되야도망하얏스오니쇼네천금
을담하야식인티로함이라죽어도다른말씀은업는이다하거늘던지진노하샤다시형
벌을느리오고저하시니간의대부왕세창이주왈죄인의초셔또흔소전과일일부합하
오니엇지형벌을람용하야인명을상하난단식이잇게하리잇고언미필에홀연결문밧
게신문고치는소리전동하며슈문장이주왈일기로랑이일기너조를잡아가지고와명
원홀일이잇노라하노이다상이의아하샤불너드리라하시니과연빅슈로랑이신장이
오척에불과하나밍렬흔괴운이미우에다하야흔손으로일기코업는너조를잇글고
부디주왈로신은조식이라평형에의괴를도화하야사름을위하야불평흔원슈를갑하
도문에노더니황각로부인위씨비조출일을변복식여천금을가지고방계곡경으로로
신을구득하야양승상쇼실선랑의머리를취하야오라하기로신이위씨의용모를보고
말씀을드름애십분길인이아니라심중에의아하더니양부에나르러선랑의창밧게자
최를곰초고만히엿보니풀자리되니불에람루흔의상과쳐초흔거동이일호잔악흔
티도를보지못홀지라갈을멈추고저하더니홀연축하에선랑이도라누으며히여진
라삼소매거드치는곳에완연흔붉은덤이팔독우에잇습기로신의아하야다시창궁
글크게쉴코저세봄애이부분명흔잉혈이라심담이셔늘하야청춘홍규의빙설긋흔지
조를쇼연이알지라로신이분을흔성품을춤지못하야그길로와위씨모녀를죽이라흔
죽선랑이강개할말씀과숨엄흔의리로쳐첩지분을군신에비유하야그불가함을척하

오니숯흐다로신이철십년협곡으로던하를편답흐오나엇지잉혈잇는음녀와의리잇
 논간인이잇스리잇고로신이선랑의안면을보아위씨의성명을용서하교다만출월을
 형벌하야후기과함이잇슬가하얏습더니이제드르니도로혀로신을인연하야선랑의
 죄목을더흐가시부오나던일지하에엇지이러호일이잇스리잇고로신이이제출월을
 실포홀가하야잡아왔스오나일일국문하사옥석을가리쇼셔말을못고장오랑을보며
 왈네우격의누우이랑이아니나위씨의천금을탐하야엄령지하에던령을괴망코져
 하니엇지당돌치아나리오하거늘던상던하에시위지신이막불칭쾌하교던지진노하
 사출월과오랑을엄형국문하시니엇지다시일호괴망함이잇스리오일일직초호대던
 지하교왈로랑은비록조각이나조현하얏스니그의괴가상이라공으로써죄를속하야
 특별이빅방하교우이랑과출월은법부에보내야다시국문하야간섭호죄인을일일사
 회하야다스리라하시니법관이황명을받조외슈출월과우격은십조가에쳐참하교
 출성우이랑은절도정비하교왕세창은사관방축하신후던지연왕을인견하시고옥석
 이추연하사왈고어에하얏스되일네함원에오월비상이라하니짐이혼암하야선랑의
 지조절개로용납홀곳이업서산중도관으로표박류하야금일그스형존몰을모르게
 되얏스니엇지감상화괴하느단식이업스리오하를며위국진중하야묘사에유공함이
 만케늘짐이그충성을힘납고공을갑지못하얏스니만일혈혈녀지병화를맞나불형함
 이잇슬진대엇지차악지아나리오하시며던안이불열하사차석함을마지아나시더라

연왕이물너부중에도라와량천씩고왈황씨의죄악이스스로나타나황상처분이명빅
 동쾌하시니철거지불에도망치못홀지라이제내치는이다하교즉사황부에의절하느
 괴별을동하니쇼져는하늘이문허진듯정신이비월하교위부인은살됨을버히는듯악
 심이비싱하야얼골이푸르며모음이떨니여쇼져를보며어허업시쇼왈내딸이싱과취
 되단말가눈업는너의부친이사위를그릇골나네신세를못치니누구를호하리오하디
 니황각되스괴를듯고창황이드러오거늘위부인이쇼져를그러쳐왈상공은너의호
 처를구하쇼셔각되당황왈부인은그무슴말이뇨위부인이쇼왈출부의기하음은조고
 로잇는바라상공이임의처음을그릇치니엇지그나종을싱각하리잇고각되부답호대
 위부인이방바닥을두드리며포악왈내딸이얼골이그러니잇가성품이호리니잇가문
 회부족하니잇가일기천기슈중에너허평성쇼교의신세를망치니상공은부귀를무엇
 하며증상의권세를무엇하리잇고출하리첩과녀를호겁에죽여이욕됨을모르게하
 쇼셔황각되무연부답하교밤그로나가더라위부인이분독을이괴지못하야머리를싸
 고향벽하야반향을누엇더니홀연니러나며양양하야왈내맛당히대후씨외읍고원동
 호소회를일장안달하리라하교즉시교조를두고컬니로드러가니라차설추시던지선
 랑의일을작쳐하시고즉시연출현에니르사래후씩고왈황씨모녀의죄악이탄로하야
 쇼제임의쳐치함이잇스오나다만그죄우지인을죄주고몸소범호자는못지아님이비
 록불가하오나황씨모네비단대신의명부될뿐아니라모후의이홀하시는바오쇼제실

로다스릴도리난편흔지라복원모후는엄절이교훈사허물을징계케하쇼셔래휘심
분불패하셔더니홀연가공인이고왈위부인이래후랑썩죄오랴밧게왔는이다하거
늘래휘더옥노하샤즉시불너계하에살니시고천히수죄하샤알

내녀의 모친을 동귀^{母親 同氣} 및 처아는 고로너를 또 혼설^{混說} 및 처고호하야네임의나히만코명부^{命婦}

지렬^{之列}에 처하야 부덕을 닦지아니하야^{狼藉 罪惡} 량자^犯 혼죄악이내귀에밧치니이무슴도리노대^{道理 大}

범투^{凡妬忌 女子 醜行}고는너의 취행이라 비록스스로 범하나눔을 더 할낫이 업슬지니하를며저식
을도아칠거지악을저취케할이리오

래휘수죄를다하셔니위부인이천연디왈궁중이심엄하와외간동정을듯지못하심이
라창던이조림하코빅일이쇼쇼하니신의모녀는빅옥무해라신첩이명되괴박하와즈
모를일즉일코래후랑랑을던디^及처바라더니이제무궁정원을숨히지아니시고이^及
치엄척하셔니신첩이다시누구들의양하리잇고언필에빈혀를싸혀머리를계전에부
디저루쉬영영하거늘래휘더옥진노하샤왈네비록나를괴망하나엇지던디신명을속
이며던디신명을속이나엇지네몸이스스로붓그럽지아나리오오허려내너를모르고
일분기과함을브랏더니금일거동을봄애더욱한심하도다구원야디의마씨로하여곰
정령이잇슬진대나를척망하야너를지도치아남을슬허하리라하셔고하교왈위씨모
녀를추즈동에가두와하여곰그죄를써듯게하라하셔니원리추즈동은마씨의묘죄라

래휘할루하셔며가공인을명하샤위씨를살니모라내치라하신대위씨분독을이그지
못하야방성대곡하며환가흠애가공인과궁되래휘의엄지를밧즈와길을지촉하거늘
위씨홀일업서쇼져와도화를다리고수리에올나추즈동으로갈시황성셔오십여리라
츠시황상셔는모친을피셔뒤를쓰르고황각로는황축불안하야장차향원으로갈셔위
씨모녀의손을잡고단왈이는다로부의죄라부인과녀는천만조보하야매를기드리
라위씨링쇼알기드리면무엇하리오첩이일국원로의안히오당사상셔의조모로일기
천기에게공욕을감슈하코원흉흔죄쉬되야흔번디옥에드러잔즉아귀밧게더되리오
하코거장을지촉하야추즈동에니르러마씨묘에일장동곡하코쳐소를무르니청산은
럽럽하코속풍은쇼슬흔디피를의지하야일간도실을지엇스니스면도벽에궁글동하
야창호를일헛스며가시로서성을싸하던일을불길이엿더라량기궁되래후의명을밧즈
외문을지회고외인을동섭지못하게하니황쇼제이거동을보고일쌍추파에루쉬^及득
하며교즈에느려모친과도화로방중에드르가니거적자리의루습흔한괴골절을침노
하야안즐곳이업는지라노쥬삼인이손을서로잡고방성동곡하다가위씨오허려도화
를호령하야침구를풀고비단자리와슈노은방석을럽럽이포진하코안연이올나안즈
며쇼왈강상대죄를짓지아니하코대역부도에범함이입스니금의옥식의호화로자란
몸이엇지일쥬일석에이코초를감슈하리오흔대황쇼제부답하코다만루쉬영영하며
^及만히비단자리를밀고거적우에안거늘위씨썩지져왈네더^及치청승스러우니괴상

이평성상과부를면치못하리다하더라차설선랑이당일진왕의구함을힘입어무양
 이진국에득달하니절국공쥐그위인과적식을보고엇지스랑치아니하리오반겨문왕
 랑이래후궁시네라하니오래입조차못함을알니로다서로안면을괴역지못하나엇지
 홀노적병에게사로잡힌배되엿다노선랑이이때를당하야엇지종적을길내속이리오
 침음랑구에실상으로고왕첩은진실로궁인이아니라연왕양승상소실벽성선이로소
 이다첩이명되괴이하야부중에잇지못하교산중에두류하야단이다가산화암에니르
 러태후량면이병화를피하샤암중에림하시니적병이암중을에위싸고스제위급흔지
 라첩이래후의몸을더신하야적병을잠간속이코인하야적진에갓치여다시성환치못
 할가하얏더니하늘이불상이보샤의외진왕던하의구활하신은덕을남스와표박종적
 이타인은비록속엿스오나엇지옥류를괴망하리잇고공쥐추언을듯고더욱괴이히녀
 여선랑의손을잡으며함루왈그러홀진대량은나의은인이로다하교인하야량면안후
 와가신곳을즈세물은후선랑노류를각별스랑하신대선랑이또홀공주의현숙흔덕과
 풍류번화흔괴상을탄복하야주걱지간에정의날로천속함애공쥐일일은종용문왕랑
 의괴적을봄애홍상홍중에무슴근심이잇는사름곳흐니그엇진곡절이며더곳흔즈질
 로무슴일을인연하야부중에잇지못하교산슈간에두류하야단이노노선랑이며리를
 슈이고참연홀스름이오중시심곡을도설치아니하더니일일은공쥐선랑과쌍륙치다
 가스으를다도아공쥐우으며선랑의팔을잡으니라삼소매거드치며일덤일혈이드러

나느니라공쥐심중에더욱놀나곡절을알고저하야종용이소청을보고힐문하니소청
 이괴망치못하야전후환란을대강고흔대공쥐바야흐로선랑의쳐디를알고촉연이녀
 이시며황씨모녀를동흔하야하더라초시던지임의북방을평당하시고도라오심애공
 쥐장차래후씩입조차실시선랑과곳치등정하야황성에니름애선랑이코왕첩이임의
 옥주의총의호심을남스와다시고국에성환하얏스오니맛당히이길로본부로가교저
 하느이다공쥐소왕랑이유년산중에부중을넋고든이다가오날무슴그리급흔일이잇
 스리오래휘만일랑의성환흔소식을드르신죽받비보시고저하실지니랑은나를조차
 꺾중에드러가몬져래후와황상씩비읍고도라감이을을가하노라선랑이홀일업서공
 쥐를되서궁중에니름애래휘밋쳐공쥐와정회를다못하시고선랑의손을잡으시며함
 루왕가랑아창던이무심치아니하시도다로신이랑을적진에보내고흔자살아스히지
 봉을의구이누리나괴신의총성이면화치못하가하얏더니이제서로성존흔일골을더
 하니이엇지신명의도음이아니리오황후비빈과가궁인이또흔일시에손을잡고반기
 더니런저공쥐음을알으시고진왕의소매를잇그러내던으로드러오시다가선랑을보
 시고경문왕더괴선재연왕의소실선랑이아니나공쥐쇼이티왈폐해엇지지상규중의
 겁히잇는가인을알으시느니잇가상이탄왈짐의사적지신이라짐이몬져알고현미알
 앗슬지니엇지현미를조차오노노진왕이이에길에서맛나구하야진국으로보내든말
 슴을일일주달하니런저괴이히녀이샤왕경이엇지일즉말하지아니하노진왕이쇼왕

신이 다만 태후궁시넨출만알고연왕쇼실임을몰랐는이다상이옥석이추연하샤공주
를보시며왕선량은우리남미의저브리지못홀은인이라무엇으로갑호리오하시고인
하야옥대를외셔형궁에숨쉬서든말과선량의용피몽중쇼년과흠스하든말과풍류로
직잔하며로균을썩짓든말을일장고하시니태휘탄왕일기녀즈의혈혈약질이동셔분
주하야우리모즈를이긋치구하니이느천고스척에듯지못하든일이로다선량이태후
씩고왕선첩이옥주의스랑하심을넙스와바로부중으로가지못하교당돌이몬져결중
에현알하얏스오니형환혼쇼식을가부에게알님이올출지라물너감을청하는이다전
왕이미미히우으며태후씩고왕신이평성벗이업습더니근일연왕과풍진동고하야지
괴로사괴였스오나즈연국가에일이만하흔중용흔비주로정회를퍼지못흔지라금
일맞춤대셔업고연왕의일헛든중회를차자다가말업시즘이무료하오니흔번신이룽
락하야랑랑의우으심을돕고저하는이다태휘대희왕현세장앗지룽락코저하는요
진왕이쇼왕랑랑은다만선량을연부로보내지말으시고금야에연왕을명초하쇼셔태
휘허락하진대진왕이다시공주를보아왕공주는비주를판비하고선량을감초아여초
여초하쇼셔공주웃고유유하더라시야에황태휘연왕을편던으로부르시니연왕이입
결하야몬져던즈씩되온대던지미쇼왕모휘경을즈셔지렬로알으샤미양스랑하시는
중금야진왕과긋치인견코저하시니경은모던슬하의즐김을돕게하라연왕이돈슈하
더라아이오래후궁시넨태후의명으로연왕을인도하야연춘면에니르니엇지흔고하

회를보라

데스십이회

황쇼제삼에상청궁에놀고

위부인이악흔창즈를밧구아희성하다

黃少姐夢遊上清宮
衛夫人回甦換惡腸

각설연왕이연춘면에니르니진왕이임의태후를외셔렴외에서좌얏더라태휘궁녀
를명하샤연왕의좌석을갓가이주시고하교왕로신이경을다른쇼신과달니아는고로
미양이긋치인견코저하나레모에구애하야미안함이만흔지라다만향양하는모음이
그옥하더니금야진왕을더하야더욱경을싱각함이근절흔고로청하얏스니경은하으
니번잡함을용셔하라경이남방에적거하고북방에출전하야라고함이만흐니비록쇼
년방장지시나괴거지절에손상함이업는나연왕이돈슈왕던은이망극하와성성지덕
이갈스룩바다긋스오니천신이무명하니이다진왕이웃고연왕을향하야왕양형이금
야이긋치인견하시는뜻을알쇼나형의쇼실선량이랑던을위하야괴신의충성을효추
하니혈혈녀지성환치못홀은당연흔일이라이제것쇼식이업습으로태휘념려하샤유
아지탄으로형의쇼이를일엇다하샤특별이궁녀중아름다운자를뽑아선량을더신하
야건줄을밧들어태후의겸연하신뜻을풀고저하심이라형의뜻이엇다하쇼연왕이쇼
왕던은이지극하시나봉승치못홀게두가지라데비록일기녀저나위국진충함을창곡

이엇지일분차셔지심을두리오호를며다른처첩이잇서임의분슈에넘치니이호는호가
 지봉승치못할바오병화적근지불구호야분찬호빅성이밋쳐환가치못호재만호니선
 랑의소성을엇지알나잇고만일련우신조호와타일가중에도라운죽데비록투심을품
 은재아니나창곡이엇지더를저브리호는붓그림이업스리오이호는봉승치못호배두가지
 니이다진왕이대쇼왕형언이과호도다선랑을위호야슈절코저호나화진이임의미
 패되야일기궁녀를명호야두엇스니만일중지호죽비상지원이되지아니라연왕이쇼
 왕형은짐짓슈단업는미패로다원치아니호는호인을이호치중미호니엇지다만슈설
 을허비호싶아니리오진왕이다시대후씨주왕연왕이호록것호로소양호오나신이그
 뜻을볼에반드시아름답지못호미인을명호실가지저함이라잠간내여그안식을희심
 이을호를가호는이다호고죄우궁녀를도라보아그미인을부르라호니진국공취선랑을
 장속호앗다가시녀로붓들녀여렴외에나감을저속호니선랑이슈습호야래후압히나
 아가공슈이시립호대래회그손을잡으시고미히우으시며연왕을보샤왕로신이쥬
 장호고진왕이중미호며혈마곱지아닌가인을경에게권호리오이호는로신의쌀호치스
 랑호는재라경에게조랑호나거의붓그릴배업슬가호노라연왕이봉안을호를녀호번복
 애풍진남복에종적이묘연호야오미일념에경경불망호든선랑이라연왕이비록심중
 에신과호나짐짓괴식을로출치아니호고래연쇼왕화형이월로적승으로가희를중미
 호는가호엇더니이제봄에성도파경으로구경을차자주니무슴새로온공을나타낼배잇

成都

스리오진왕이대쇼호고죄우를보아왕일길신랑호야가공슈성호니이호는죄셔에엇
 지일비취업스리오호고비반을저속호대진국공취궁녀를명호야일반대탁을받들어
 드리니진왕이천히대빅을그득부어래후씨고왕연왕이경각지간에말슴이달나아마
 는엄명을어기며괴로이소양호고지금은괴석이대락호야일호를가겁호오니공경호는
 도리아니라불가무별이니이다호고연왕을권호거늘연왕이박조와마신후호호잔을
 쳐들고래후씨주왕턴은이감속호와미인을소송호시거늘진왕이무례호야제공을요
 구호오니불가무별이니이다호고진왕을권호니인호야비반이랑자호야랑왕이모다
 취호저라아시오죄위창황호며련지드러오샤호연이우으시며래후를되셔죄에안조
 심에대취랑왕의슈작을일일이고호시며단왕조고이리로위국호야충신렬시만호나
 엇지너조중선랑호호재잇스리오바야호호호병이호면으로에위쌀제비록담대호장
 워라도간담이떨니고슈각이황망호야각각도싱호를둘려든호를며잔약호너저리
 오개연이호번죽기를판단호고십만호병을초개호치보아래연이호디에나아가니이
 호는강작호야못호바라고호에한나라고신이한왕을다신호야충절이혁혁호나이는당
 당장뷔오식국지록호야직척이몸에잇슴이라금일선랑은척망업는호너저라만일의
 연호련성이충의지심을품은재아닌죽엇지창졸에이경륜을관출호리오슈연이나충
 신을호조지문에구호다호니다만선랑의충심이탁월호를아니라평일연왕의호도호
 덕인가호노라련지추연기용호시며진왕을보샤왕선랑의고질이더호치청약호나거

문고를 밀치고로적을썩지짐애팔즈춘산에상풍이쇼슬하니보는자로하야곰업든충
 분이유연이싱길지라의봉덩전에연왕의충성으로돌리지못하든흔암흔인군을수곡
 지금으로용용이풍간하야화연이세뜻게하니이진실로고금의업는일인가하노라
 량왕이돈슈하더니아이오일모하며량왕이되출홀시래회궁녀를명하야취홀을붓들
 어던페에느림을보시고바야흐로선랑을부중으로내여보낼시래회량던과공슈비빈
 이모다창연하여수이다시드러움을말하시며비록기간이라도련련흔정회원별홀
 하여하시더라연왕이선랑을다리고부중에니름애상해대경하야래페는손을잡고반
 거스지부싱홀고창두차환은강주로가든일을말하며던되무심치아님을차탄하더
 라차설광음이홀홀하야황쇼제츄즈동에온지임의일삭이라식음을전페하고슈야호
 음하야월티화용이날로쇠샤하고슈요라군에루흔이므를때적으니위씨척왈구가의
 출부됨을설위홀이나국의죄슈됨을탄식홀이나잔명을즈절하야천기의쇼원을일
 위주고저하니출하리어셔죽어내어미잔장을티오지말라쇼제도모지답홀이업고더
 육을기를마지아니하더니일일은츄풍이날며던괴쇼슬흔중적막공산의습허우는두
 견성과덤덤흔침아뜻히흐르는반디불이쳐량흔근심과비창흔회포를일비촉동하는
 지라모천과도화논임의잠드렸고홀로버기를의지하야경경잔등을믹믹히브라보며
 잠을일우지못하고왕스를싱각하며신세를차탄하더니홀연스몽비몽중에삼흔이유
 유하고철벽이탕탕하야흔곳에니르니일좌루각이반공에소삿는대문당이심슈하고

本如

장원이괴결하야인간궁궐과방불흔중무수흔선내혹란도를두고혹부황을멍에하야
 쌍쌍이왕리하거늘황쇼제압히나가일기선녀를잡고문왈이곳은엇더흔곳이며더
 루각은뉘집이뇨선내답왈이곳은련상옥경이오더루각은소위상청궁이니이궁중에
 상청부인이계시니라쇼제우문왈상청부인은엇더하신부인이뇨선내쇼왈그디는엇
 더흔녀제완대상청부인을모르느뇨부인은이에주나라래서시니상대의명을받아상
 청궁에쳐하야련상선녀를교흔하시니이다황쇼제초언을듯고심중에싱각하되내일
 죽드르니래서아름다운덕이잇서천츄부인의스피라하니엇더흔사람인가보리라
 하고문전에니르러청알흔대일기시네길을인도하야궁중에드러가니십이란간에슈
 렴을놓히것고삼천궁내명월패를올리며연상에피섯스니이상향내정신이황홀흔
 중일위부인이거지유한하고용되단정하야검소흔복석과유순흔래도로벽옥표의에
 놓히안졌스니봉션은번이시위엄슈하더라황쇼제를인도하야바로연상에오름애상
 청부인이문왈그디는엇더하사름이뇨황쇼제앙연답왈첩은인간대명국연왕의데이
 부인황씨니이다상청부인이황망이교의에느려답래왈인간연상이엇지다르리오부
 인이임의털국부인이실진대또흔귀인이라엇지이곳에니르시뇨하고시녀를명하야
 첩보방석을베풀고안증을청흔대황쇼제스양차아니하고좌에나아가왈첩이부인의
 현숙하신덕을듯고그르침을엇을가하야왔느이다상청부인이쇼왈내무슴덕이잇스
 리오부인은례의지방에고문대족으로왕후부인의존귀함을겸하시니반드시규범너